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THE CLUE 더 한글다운 것

'한글 숲' 한글날(9일)을 나흘 앞둔 5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한글 서체를 선보인 작품 '한글 숲'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선의 대표 디자이너 '이도'를 아시나요?"

563돌 한글날(9일)을 맞아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18일~11월4일) '글'(學) 섹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글'섹션은 한글 속에 담긴 과학적인 창제 과정과 디자인 가치를 전시해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한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한글 나무 블록, 한글 도자기 등 한글의 상품화 현장도 엿볼 수 있는 전시이다.

'한글'은 인류 최고의 디자인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글' 섹션 인기

한글 디자인 가치 찾고 상품화 모색

지역업체 '인스나인' 생활 도자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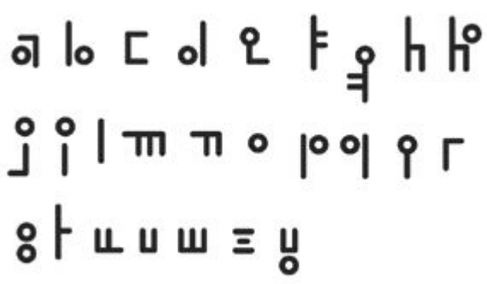
서울여대 한재준 교수가 기획한 '글' 섹션은 '이도'를 대표 작가로 선정했다. '이도'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1397~1450년)의 본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왕으로서의 그의 업적보다는 한글 속에 담긴 디자이너로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시호인 '세종'이 아닌 '이도'라는 본명을 사용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3전시실에 마련된 이번 전시는 한재준 교수의 작품 '도라지'가 먼저 관람객을 맞는다. 노랫말의 자음과 모음을 순서대로 분리시킨 뒤 음의 장단과 고저에 따라 글자를 재배열했다.

한글연구소가 선보인 '한글 숲'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200여 종의 한글 서체를 한 자리에 모은 작품이다. 명조, 궁서, 고딕 등 다양한 서체 변형이 가능한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 '한글 나무블록'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배려한 '이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관람객들이 직접 'ㄱ' 'ㅇ' 'ㄷ' 'ㅗ' 'ㅣ'와 짧은 'ㅣ' 등 6가지 자음과 모음으로 단어를 만들 수 있다. 'ㄱ'을 뒤집어 'ㄴ' 'ㅅ'을 만들 수 있는 등 6가지 자음과 모음만으로도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한글 과학'이 담겨있다. 이 작품은 현재 특허 출원 중이며, 지역 디자인 업체인 '인스나인'이 생활 도자기로 상품화했다.



마시모 피티스 작 '한글과 외국어의 결합'

한글의 아름다움이 도시와 기업체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과정도 보여준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서울시가 만든 '한강체' '남산체'와 삼성그룹이 쓰는 '삼성체' 등도 함께 전시한다.

'한글을 말하다'와 '세계속의 한글'은 한글의 학술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한글을…'은 영화감독, 교사, 디자이너 등 전문가 21명이 설명하는 한글의 우수성을 영상에 담았다. '세계속…'은 영어, 중국어 일어, 아랍어. 인도어와 한글을 비교 전시해 한글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한재준 작 '세계속의 한글'

이 밖에 관람객이 직접 선택한 서체를 티셔츠와 가방에 프린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전송하는 체험행사도 곁들여진다.

또 이탈리아 작가 마시모 피티스가 각국의 서체와 한글을 결합시킨 작품 등도 볼만 하다.

한재준 교수는 "그동안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디자인적인 가치를 찾는 전시는 드물었다"면서 "한글날을 맞아 아름다운 한글 디자인을 감상하고, 상품화를 모색하는 뜻 깊은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국 여성합창단들 광주에

9·10일 문예회관서 경연대회 … 총 36개 팀 1,200명 참여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 부대행사로 지난 6월 열린 광주지역 여성합창단 합동공연 모습.

전국의 여성합창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광주시가 주최하는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가 오는 9일(오후 4시~6시40분)과 10일(오후1시30분~ 6시30분) 이틀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지난 2007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번 경연에는 총 36개팀 1천200명이 참여한다. 강서구립합창단과 송파구립합창단 등 서울 지역 5개팀을 비롯, 타지역에서 28개팀이 참여했으며 광주에서는 북구여성합창단 등 8개 팀이 경연을 벌인다.

지방 자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대상 1천 500만원 등 총상금 6천500만원을 수여한다.

모두 39개팀이 참여했던 2007 제1회 전국여성합창제에서는 화성시여성합창단이 대상을 수상했었다.

올해 대회 역시 쟁쟁한 팀들이 많이 참여했다.

부산국제합창제 민속 부문 금메달 수상팀인 분당구어머니합창단, 전국합창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팀인 서울성북구어머니합창단, 전국의림합창경연대회 특별상 수상팀은 철원태봉합창단 등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실력파 합창단들이 총출동하며 2003년 창단 이래 매년 불우이웃돕기 자선음악회를 열고 있는 광주여성합창단, 불우시설을 방문 등 노래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합창단들이 대거 참여했다.

참가팀은 각각 자유곡 2곡을 부르며 10일에는 파파남성합창단과 CNS 금관5중주단의 특별초청 공연도 열린다.

행사를 주최하는 광주시는 이번 경연을 '광주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행사가 열리는 문예회관 로비에 관광부스를 운영,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광주·전남 지역의 볼만한 장소를 소개한다. 또 각 지역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귐의 장'을 운영, 간단한 음식을 제공하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밖에 5일에는 대회 운영 등을 맡을 자원봉사자(30명) 발대식이 열렸다. 신종플루에 대비, 열감지기와 손세정제를 구비했으며 의료팀도 상주한다. 일반 시민들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13-343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훈민정음 백일장'

9일 사직공원 팔각정

광주독서논술문화원은 한글날을 맞아 오는 9일 오후 1시30분부터 광주시 남구 사동 사직공원 팔각정 일원에서 '563돌 한글날 경축 훈민정음 백일장(13회)'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훈민정음 창제의 참뜻을 함께 생각하고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고 되새겨 보는 기회로 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일반부로 구분 접수받고, 운문과 산문 부문별로 나눠 치러진다. 참가신청은 8일까지 광주독서논술문화원으로 하면 된다.

출제와 심사 채점평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고 심사는 자체규정에 의한다. 시상식은 당일 행사 마감 뒤 채점 평가 후 바로 진행한다. 참가비 없음. 문의 062-232-868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플루티스트 김치형 귀국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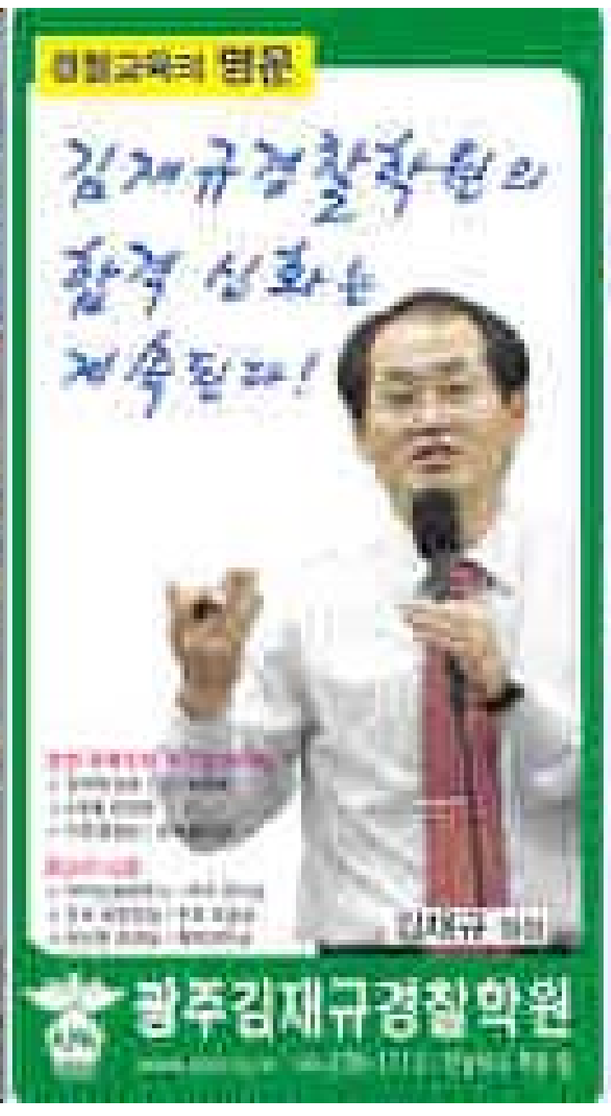
9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플루티스트 김치형 귀국 독주회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포레의 '판타지', 베토벤의 '피아노와 플루트, 바순을 위한 트리오', 드뷔시의 '시링크스', 이베르의 '콘체르토', 보르네의 '판타지'(카르멘) 등이다.

문성고·광주대를 거쳐 2004년 독일로 유학, 독일아헨국립음대 학사·석사 과정을 거쳐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 씨는 파도바 국제콩쿠르 앙상블 부문 3위에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또 독일 본 베토벤 홀, 이태리 몬테풀치아노 극장 등의 무대에 서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이태리 부퍼탈 음대 섬머아카데미와 이태리 플루트 마스터클래스 등에 참가했다.

한편 이번 공연에는 중국과 독일에서 솔리스트로 활발한 활동 중인 중국 출신 바순 연주자 첸공시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피아노 반주는 임근화씨.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